2013년02월02일년 PSAT 상황판단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②	④	⑤	④	①	①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과목 : 38문제】 과목 구분 없음	⑤	②	①	②	③	④	④	②	④	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③	⑤	⑤	②	⑤	③	④	①	③
	31	32	33	34	35	36	37	38		
	③	②	④	③	④	④	⑤	①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38문제)

1.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 미국인의 일상생활은 1919년 이후 꾸준히 변해왔다. 1919년 5월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스미스씨의 복장만 보면 1930년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스미스씨의 바지통이 1930년보다 좁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다. 이처럼 남성들의 패션은 빙하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변화한다.
>
> 이와는 달리 스미스 부인은 당시의 유행대로 발목 부분에서 오므라들고, 발목에서 10cm 올라가 있는 치마를 입고 있다. 부인은 패션잡지에서 "부르봉 왕조 이래 여자들이 이렇게 다리를 내놓았던 적은 없다"는 놀라운 이야기와 앞으로 치마 길이가 더욱 짧아질 것임을 전망하는 기사를 보았지만, 발목에서 10cm 위는 여전히 당시의 표준적인 치마 길이였다.
>
> 또한 스미스 부인은 지난 겨울 내내 끈으로 꼭 맞게 조인 워킹 부츠 혹은 사슴 가죽을 부착한 에나멜 구두로 복사뼈를 감싸고 있었지만, 지금은 봄이라는 계절에 맞게 단화를 신고 단화 안에는 검은색 스타킹을 신었다. 스미스 부인은 황갈색 구두를 신을 때 황갈색 스타킹을 신는다.
>
> 1919년이면 화장은 매춘부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희미해지고, 세련된 소녀들은 이미 대담하게 화장을 시작했을 때이다. 하지만 스미스 부인은 분을 바르는 정도로 얼굴 화장을 마무리하고, 색조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았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스미스 부인 같은 여성들은 아직 '불연지'라면 미간을 찌푸린다.
>
> 스미스 부인의 머리는 길다. 그래서 부인은 외출할 때에는 모자를 쓰고 긴머리를 머리 뒤쪽에 핀으로 단정하게 고정시키는 베일(veil)을 착용한다. 스미스 부인에게는 긴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단발머리 여성이나 장발의 남성은 자유연애주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급진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❶ 1919년과 1930년 사이에 미국 남성들의 바지 모양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② 1919년의 여성들의 치마는 대체로 무릎을 드러내는 정도의 길이였다.

③ 스미스 부인은 외출을 할 때는 볼에 색조 화장을 하였을 것이다.

④ 긴 머리의 여성은 자유연애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⑤ 스미스 부인이 신은 단화는 황갈색이었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여러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1485년(성종16년)에 최종본이 반포되었다. 경국대전은 6조(曹)의 직능에 맞추어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전(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경국대전에는 임금과 신하가 만나서 정사를 논의하는 조회제도의 기본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조회에 대한 사항은 의례 관련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 예전(禮典)의 조의(朝儀) 조항에 집약되어 있다. 조의는 '신하가 임금을 만나는 의식'을 의미한다. 아래 <표>는 경국대전 '조의'에 규정된 조회 의식의 분류와 관련 내용이다.
>
> <표> 경국대전의 조회 의식

분류	종류	시행일	장소	참여대상
대조(大朝)	정실조하(正室朝賀)	정삭(正朔), 동지(冬至), 탄일(誕日)	근정전(勤政殿)	왕세자, 모든 관원, 제방객사(諸方客使)
	삭망조하(朔望朝賀)	매월 삭(朔)(1일), 망(望)(15일)	근정전(勤政殿)	왕세자, 모든 관원, 제방객사(諸方客使)
상조(常朝)	조참(朝參)	매월 5·11·21·25일	근정문(勤政門)	모든 관원, 제방객사(諸方客使)
	상참(常參)	매일	사정전(思政殿)	상참관(常參官)

※ '대조'는 특별한 시점에 시행되는 조회라는 의미이고, '상조'는 일상적인 조회라는 의미이다.

※ '제방객사'는 주변국 외교사절로서, '삭망조하'와 '조참'에는 경우에 따라 참석하였다.

> 대조(大朝)의 범주에 해당하는 조회는 경국대전에 조하(朝賀)로 규정되어 있다. 조하는 축하를 모임의 목적으로 하는 의식이다. 정월 초하루, 해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 및 국왕의 생일 행사는 대조 중에서도 특별히 구분하여 3대 조회라고 지칭하고 의식의 규모도 가장 크다. 조하는 달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달의 변화를 기준으로 작성된 달력에 따라 매월 1일에 해당되는 삭일(朔日)과 보름달이 뜨는 망일(望日)에 시행되는 삭망조하가 그것이다.

<보 기>

ㄱ. 삭망조하는 달의 변화에 맞추어 시행되었다.

ㄴ. 정실조하의 참여대상 범위는 대체로 상참보다 넓다.

ㄷ. 한 해 동안 조회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은 사정전이다.

ㄹ. 조선시대 조회에 관한 사항은 공전(工典)의 의례 관련 규정에 집약되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❸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디자인은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을 두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이나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아름답다든가 멋있다는 등의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다.

한편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권적 방법과 저작권적 방법이 있다. 특허권적 보호방법이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만을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한 사람이라도 그 디자인에 대해서 타인이 이미 등록을 하였다면, 그는 특허청에 등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와 달리 저작권적 보호방법이란 등록과 같은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타인이 이미 창작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고안한 사람이라도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이 고안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특허권적 보호방법을 취하며, 일본·미국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보 기>

ㄱ. A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일본에서 독점·배타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본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B가 아름다운 노래를 창작한 경우, 그 노래는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ㄷ. C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D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더라도, 이를 미국에서 사용하면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ㄹ. 독일인 E가 고안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더라도, E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다.

① ㄱ, ㄴ

❷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다음 글과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변제의 장소, 대금지급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인도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특정물인도 채무와 불특정물인도 채무로 나뉜다. 특정물인도 채무는 특정된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예컨대 골동품 가게에서 골동품X를 매수한 경우, 골동품 가게 주인은 매도인으로서 그 골동품X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
> 불특정물인도 채무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예컨대 체육대회 도중 동네 가게에 전화하여 맥주 1상자를 주문한 경우, 가게 주인은 여러 맥주 상자 중 1상자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
> 한편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일종의 불특정물인도 채무이다.

> <법률규정>
> 제00조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변제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인도 채무의 변제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제00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 기>
> ㄱ. 甲이 쌀 1가마니를 전화로 乙에게 주문한 경우, 乙이 쌀 1가마니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甲의 현주소이다.
> ㄴ. 甲이 자기 집에 주차되어 있는 중고 자동차X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 甲이 중고 자동차X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 ㄷ. 甲이 乙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 ㄹ. 甲이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중고 자전거Y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중고 자전거Y를 인도할 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甲의 집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❹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문화바우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문화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5만 원 상당의 문화예술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2005년 5억 원 예산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1년 347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대표적인 문화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
> 그러나 대상자의 문화카드 발급률과 사용률에 있어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문화생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차이보다는 대상자의 거주지역, 문화예술 교육경험, 나이, 학력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화카드 발급률 및 사용률 실태조사에서 세대적 요인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와 30대의 발급률과 사용률은 각각 90% 이상인 반면, 50대와 60대의 경우 각각 50% 이하로 나타났다.
>
> 또한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발급률과 사용률 평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70% 이상이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2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80% 가까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
> 이와 같이 문화카드의 발급률과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 대부분이 사업 시행을 모르거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해 문화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고령의 농촌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도 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① 고학력자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 확대 방안

② 사업의 불법 수혜자에 대한 적발 강화 방안

③ 농촌지역의 문화바우처사업 예산 확대 방안

④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문화 사업 다양화 방안

❺ 사업의 홍보 확대 및 문화카드 발급절차 간소화 방안

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정부는 미술품 및 문화재를 소장한 자가 이를 판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정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畫)·골동품'으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것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거래 및 양도도 제외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란 (i)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ii)판화·인쇄화 및 석판화의 원본, (iii)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을 6,000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차액의 80~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20~10%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작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양도차액의 80%가, 10년 이상일 때는 양도차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기타소득세의 세율은 작품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20%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그림을 구입하여 10년 후 6,000만 원에 파는 사람은 양도차액 5,000만 원 가운데 90%(4,500만 원)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 500만 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결정 세액은 100만 원이다.

※ 양도가액이란 판매가격을 의미하며, 양도차액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보 기>

ㄱ. A가 석판화의 복제품을 12년 전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올해 5,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1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ㄴ. B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골동품 1점을 5년 전 1억 원에 구입하여 올해 1억 5,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ㄷ. C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내 화가의 회화 1점을 15년 전 100만 원에 구입하여 올해 1억 원에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ㄹ. D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국내 화가의 회화 1점을 15년 전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올해 3,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 4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❹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 수출하는 재화가 선박에 선적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 -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
>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 당일의 '적용환율'로 계산한 금액
>
> -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
>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까지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또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

<상 황>

甲주식회사는 미국의 A법인과 2월 4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주식회사의 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출대금 : $50,000
2) 2. 4. : 수출선수금 $2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3) 2. 12. : 세관에 수출 신고
4) 2. 16. : 수출물품 선적 완료
5) 2. 20. : 수출대금 잔액 $3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외환시세>

(단위:원/달러)

일 자	기준환율	적용환율
2. 4.	960	950
2. 12.	980	970
2. 16.	1,000	990
2. 20.	1,020	1,010

❶ 49,000,000원

② 49,030,000원

③ 49,200,000원

④ 49,300,000원

⑤ 49,600,000원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소취하: 소송진행 중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소(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소송에서 변론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소취하를 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소송이 소멸된다. 원고는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1심 소송진행 중에 소취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소송진행 중에도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1심의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송이 소멸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1심 소송결과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결과 소송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소송만 종료된다.
- 항소취하: 1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抗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자를 '항소인'이라고 하고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항소가 소멸되고 항소심은 종료된다. 항소취하는 항소 제기시점으로 소급하여 항소만 소멸되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며 그 판결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해결된다.

<상 황>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乙이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甲이 원고가 되어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甲의 주장을 인정하여 甲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❶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乙은 항소취하를 할 수 없다.

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甲은 乙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④ 항소취하가 유효하면 항소심이 종료되고, 甲의 乙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의 효력은 소멸된다.

⑤ 소취하가 항소심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분쟁에서 甲이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9. 다음 글에 따라 <정간암호문>을 해독했을 때, 지도 상의 ★에서 시작한 추적 · 이동이 종료되는 지점은?

정간보는 仲, 林, 無, 蕤, 太의 5가지 기본율명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악보이다. 필요에 따라 기본율명에 氵이나 亻을 붙여 율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간암호문은 정간보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본율명은 각각에 부여된 다음의 규칙에 따라 추적·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암호'가 된다.

仲 : 제자리에 머무름.
林 : 동쪽으로 이동함.
無 : 서쪽으로 이동함.
蕤 : 남쪽으로 이동함.
太 : 북쪽으로 이동함.

그 외의 정간암호해독규칙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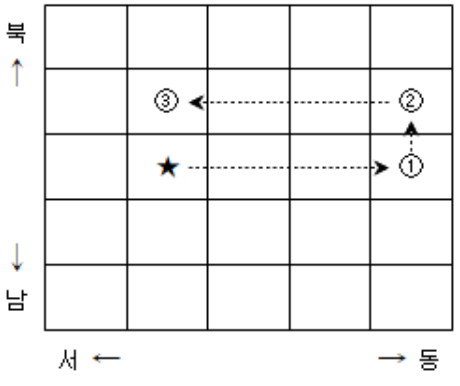
1. 정간암호문은 1번 정간(가장 왼쪽)에서 해독을 시작해 ◉에서 종료된다.
2. 정간암호문에 기록된 모든 율명을 해독하여야 하며, 중복해서 해독할 수 없다.
3. 율명은 반드시 순서대로 해독할 필요는 없다.
4. 기본율명에 氵이 붙으면 정간암호문에서 순방향(좌 → 우)으로 해독하고, 亻이 붙으면 정간암호문에서 역방향(우 → 좌)으로 해독한다.
5. 하나의 율명을 해독하고 그 다음 율명을 해독할 경우, 해독한 율명으로부터 4정간 이내에 있는 율명의 해독만 가능하다.
6. 정간암호문에서 林無, 蕤太, 無林, 太蕤은 연이어서 해독할 수 없다.

※ 정간보 상의 한 칸을 정간이라 하며, 정간 사이의 거리를 간이라 한다.

정간암호상 1간은 지도 상의 1칸에 대응한다. 정간 암호문의 예시, 해독결과 및 지도 상의 추적·이동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淋		潕	仗		◉

- 정간암호해독결과:1→4→3→6
- 지도 상의 추적경로:동쪽으로 3칸 이동(①) 후, 그 지점에서 북쪽으로 1칸 이동(②)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서쪽으로 3칸 이동(③) 후 추적 종료



<정간암호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淋		汰		潕	僬	潢	淋	亻林			◉

북

① 가

❷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에서 발생한 슬기의 손익은?

- 甲은행이 A가격(원/달러)에 달러를 사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乙은행이 B가격(원/달러)에 달러를 팔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중개인은 달러 고시 가격을 A/B로 고시한다.
- 만약 달러를 즉시 사거나 팔려면 그것을 팔거나 사려는 측이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환전수수료 등의 금융거래비용은 없다.

<사 례>
- 현재 달러 고시 가격은 1204.00/1204.100|다. 슬기는 달러를 당장 사고 싶었고, 100달러를 바로 샀다.
- 1시간 후 달러 고시 가격은 1205.10/1205.20으로 움직였다. 슬기는 달러를 당장 팔고 싶었고, 즉시 100달러를 팔았다.

❶ 100원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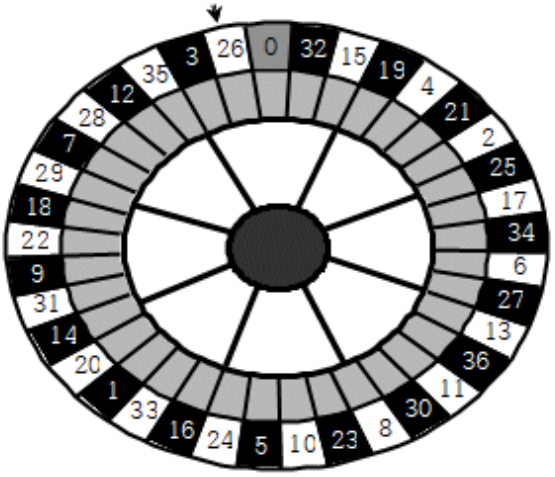
② 120원 이익

③ 200원 이익

④ 100원 손실

⑤ 200원 손실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甲과 乙은 1에서 6까지 표시된 정육면체 주사위와 위의 그림과 같은 판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甲과 乙의 말을 숫자 260| 쓰인 곳에 각각 두고 게임을 시작한다.
2.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부터 번갈아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말을 이동시킨다.
3. 이때 이동한 말이 도착한 곳의 바탕 색깔이 흰색이면 그 곳의 숫자만큼 점수를 획득하고, 바탕 색깔이 검은 색이면 그 곳의 숫자 두 배만큼 점수를 획득한다. 단, 숫자 00| 쓰인 곳에 말이 도착하면 획득하는 점수는 없다.
4. 처음 출발 지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0점이다.
5. 어느 한 사람이 획득한 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승리하고 게임은 종료된다.

<보 기>
ㄱ. 숫자 00| 쓰인 곳을 제외하고, 숫자 10| 쓰인 곳에 말이 도착할 때 유일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 될 수 있다.
ㄷ. 甲이 주사위를 먼저 던질 때, 甲은 매번 10| 나오고 乙은 매번 60| 나온다면 甲이 게임에서 승리한다.
ㄹ.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것이 게임에서 유리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❺ ㄴ, ㄷ, ㄹ

12. 커피전문점 A와 B는 ○○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A와 B의 개점 및 매출액 등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B의 전체 지점의 월간 매출액이 A의 전체 지점의 월간 매출액을 넘어서는 최초의 시점은?

- B는 A가 개점한 지역에, A가 개점한 순서에 따라, B의 개점주기대로 반드시 진입한다.
- B의 커피맛이 A보다 더 좋아 B가 진입하면 해당 지역의 전체 커피수요는 증가하지만, B가 A의 소비자 대부분을 끌어오게 되어 해당 월부터 바로 A의 지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다.
- A, B는 한 지역당 한 지점만 개점한다.

구분	A	B
○○국 1호점 개점일	2013년 1월 1일	2013년 3월 1일
개점주기	매월 1일, 1지점	격월 1일, 1지점
각 지점당 월간 매출액	- 100만원 - B가 진입한 지역의 지점은 20만원	150만원

① 2013년 7월

❷ 2013년 9월

③ 2013년 11월

④ 2014년 1월

⑤ 2014년 3월

13. 다음 <사실>과 <진술>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사 실>
- 가영, 나리, 다솜, 라익, 마음, 바울이는 어느 날 아침에 숙소의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 후 가영, 나리, 다솜, 마음이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 이들은 잼, 요거트, 빵, 우유, 주스, 샐러드, 버터, 치즈, 쿠키, 달걀 프라이, 감자 등 총 11종류의 음식을 먹었다.
- 최소 1종류 이상의 음식이 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상한 음식을 1종류라도 먹게 되면 식중독에 걸린다.
- 식중독의 발병 여부는 섭취한 음식량과 무관하며,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을 먹었으면 식중독에 걸린다.
- 음식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진 술>
- 가영: 잼을 넣은 요거트를 먹었어. 잼을 바른 빵과 함께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샐러드랑 쿠키도 먹었어.
- 나리: 잼과 버터를 바른 빵과 함께 감자랑 달걀 프라이를 먹었어.
- 다솜: 빵 사이에 치즈를 끼워서 우유와 함께 먹었어. 요거트랑 쿠키도 조금 먹었어.
- 라익: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서 달걀 프라이랑 우유, 감자만 조금 먹었어.
- 마음: 요거트를 먹은 후, 잼 바른 빵과 샐러드에 주스를 함께 먹었어.
- 바울: 버터 바른 빵과 달걀 프라이에 우유를 먹고, 후식으로 요거트를 먹었어.

❶ 가영이가 먹은 음식 중 상한 음식은 반드시 한 종류일 것이다.

② 다솜이가 요거트와 우유를 먹지 않았어도 식중독에 걸렸을 것이다.

③ 만약 잼을 바른 빵과 우유, 달걀 프라이를 먹는다면 식중독에 걸릴 것이다.

④ 만약 샐러드와 치즈, 쿠키와 우유를 먹는다면 반드시 식중독에 걸릴 것이다.

⑤ 나리가 먹은 음식 중 상한 음식은 반드시 한 종류일 것이다.

14. 지금은 금요일 17시 50분이다. <근로조건>과 <직원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甲회사 김과장이 18시부터 시작하는 시간 외 근로를 요청하면 오늘 내로 A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직원은?

<근로조건>

가. 甲회사의 근로자는 09시에 근무를 시작해 18시에 마치며,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나. 시간 외 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 시간 외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여성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요한다.

※ 시간 외 근로: <근로조건> '가.'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 야간근로: 22시에서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

※ 시간 외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없음

<직원정보>

이름	성별	이번 주 일일근로시간					A프로젝트 완수 소요시간	시간외근로 동의여부	야간근로 동의여부
		월	화	수	목	금			
김상형	남	8	8	8	8	8	5	×	-
전지연	여	-	10	10	10	8	2	○	×
차효인	여	9	8	13	9	8	3	○	○
조경은	여	8	9	9	9	8	5	○	×
심현석	남	10	11	11	11	8	1	○	-

※ 출산여부:전지연은 4개월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번 주 화요일에 복귀하였고, 나머지 여성직원은 출산 경험이 없음

① 김상형, 차효인

❷ 차효인, 심현석

③ 차효인, 조경은

④ 전지연, 조경은

⑤ 전지연, 심현석

15. 고민정은 x, y의 2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5개 정당(A~E) 대표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메모하였다. 다음 <메모>를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단, 각 정당대표의 태도는 '찬성', '중립', '반대' 중 어느 하나이며, 해당 정당의 의견이다)

<메 모>

- A정당대표: x조항에 대한 태도는 C정당대표의 y조항에 대한 태도와 같고, y조항에 대한 태도는 C정당대표의 x조항에 대한 태도와 같음. 단, A정당대표와 D정당대표간 동일한 태도를 취한 조항은 없음.
- B정당대표: x조항에 대해 중립이고,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A정당대표보다 부정적임.
- C정당대표: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중립임.
- D정당대표: x, y조항에 대한 태도는 같음.
- E정당대표: x조항에 대해 중립이며, y조항에 대해서는 D정당대표의 태도와 같음.

※ 찬성보다 중립이 부정적이고, 중립보다 반대가 더 부정적이다.

① 두 조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정당은 A정당이다.

② y조항에 대해 정당대표 과반수가 '찬성'이다.

❸ 두 조항 모두에 대해 '찬성'한 정당은 없다.

④ x조항에 대해 정당대표 과반수가 '반대'이다.

⑤ x조항에 대해 같은 태도를 보인 정당은 2개이다.

16. 다음 <그림>에서 맨 윗줄에 있는 임의의 한 숫자에서 시작하여 아래쪽으로(대각선 방향 포함)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다. 위로 가거나 좌우로 이동할 수는 없다. 숫자 1과 숫자 1의 좌우 옆칸은 지날 수 없지만, 시작과 도착은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맨 아랫줄까지 이동할 때, 시작부터 도착까지 숫자의 합이 가장 큰 것은?

< 그 림 >

	좌							우
상	9	4	5	3	6	1	8	2
	8	2	2	1	3	2	5	1
	6	9	8	4	2	4	3	5
	4	8	1	3	5	2	6	1
	1	4	3	7	6	3	1	4
	9	2	4	8	6	4	5	3
	4	2	4	9	8	6	7	1
	2	8	1	6	5	9	3	2
하	9	6	7	2	1	4	3	5

① 52

② 53

③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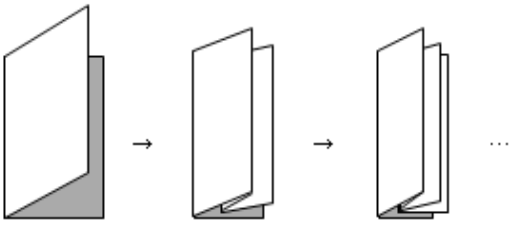
❹ 55

⑤ 58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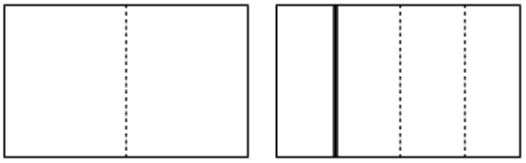
17. 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먼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수직방향의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접는 경우만을 고려하자. 접은 종이를 처음과 같이 폈을 때, 접은 흔적은 위로 튀어 오른 '마루'와 아래로 접힌 자국의 '골'로 되어 있다.



<1번 접은 경우> <2번 접은 경우> <3번 접은 경우>

(나) 이제 접었던 종이의 흔적에서 점선으로 표시되는 '골'은 0으로, 실선으로 표시되는 '마루'는 1로 나타내보자. 오른쪽으로 n번 접은 종이의 흔적을 나타낸 0과 1의 배열을 'C_n'이라고 하자.



$C_1 = 0$ 오른쪽으로 1번 접은 종이

$C_2 = 100$ 오른쪽으로 2번 접은 종이

<보 기>

ㄱ. $C_3 = 1100100$

ㄴ. C_5의 정가운데 숫자는 반드시 0이다.

ㄷ. C_n의 정가운데 숫자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숫자는 동일한 경우가 있다. (단, $n > 1$)

ㄹ. C_n을 구성하는 0의 개수가 1의 개수보다 반드시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ㄹ

❹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 <조건>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꽃다발의 최대 가짓수는?

<조 건>
- 꽃다발을 만드는 데 5종류의 꽃(장미, 카네이션, 리시안셔스, 수국, 작약)과 2종류의 잎(유칼립투스, 루스쿠스)을 사용한다.
- 꽃다발은 꽃과 잎을 5종류 이상 조합하여 만든다. 단, 작약을 넣은 경우에는 작약을 포함하여 꽃과 잎을 4종류만 사용한다.
- 잎은 반드시 1종류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 수국과 작약은 동시에 포함될 수 없다.

※ 같은 종류의 꽃과 잎이 사용된 꽃다발은 사용된 꽃과 잎의 개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꽃다발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장미 한 송이로 만들어진 꽃다발과 장미 열 송이로 만들어진 꽃다발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① 15가지
❷ 16가지
③ 17가지
④ 18가지
⑤ 19가지

19. 부수오행에 따른 항렬자를 정하고자 한다. 김○○이 화(火)를 부수로 하는 항렬자를 이름의 둘째 자에 쓰고 있다면, 자신을 1대로 했을 때 9대손 김△△의 항렬자의 부수와 항렬자의 위치는? (단, 항렬자와 그 위치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19번 공통지문 문제)

① 화(火), 이름 첫째 자
② 화(火), 이름 둘째 자
③ 수(水), 이름 첫째 자
❹ 수(水), 이름 둘째 자
⑤ 목(木), 이름 첫째 자

20.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중세 이래의 꿈이었던 인도 항해가 바스쿠 다 가마(Vasco da Gama) 이후 가능해지자 포르투갈은 아시아 해양 세계로 진입하였다.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상업 체계는 무역풍과 몬순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규칙적인 틀이 만들어져 있었다. 지중해를 잇는 아덴-소팔라-캘리컷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서쪽에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아랍권의 것이었다. 여기에 동쪽의 말라카가 연결되어 자바, 중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간이 연결된다. 한편 서쪽의 상업권에서 홍해 루트와 페르시아만 루트가 뻗어나가서 지중해권과도 연결된다.

포르투갈은 인도양 세계 전체를 상대로 보면 보잘것없는 세력에 불과했지만, 대포를 앞세워 아시아를 포함한 주요 거점 지역들을 무력으로 장악해 나갔다. 이런 성과를 얻기 위해 포르투갈은 엄청난 비율의 인력 유출을 감내해야 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해외 유출인구는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포르투갈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이것은 남자 인구로만 본다면 35%의 비중이었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사망했는데 각 세대마다 남자 인구 7~10%가 희생되었다. 이런 정도로 큰 희생을 치러가며 해외 사업을 벌인 경우는 역사상 많지 않았다.

포르투갈의 아시아 교역에서는 후추 등 향신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후추를 얻기 위해 인도로 구리를 가져가서 거래를 했는데, 구리 무게의 2.5~4배에 해당하는 후추를 살 수 있었다. 포르투갈의 해외 교역은 사실상 후추 등 향신료 교역이었으나, 후추 산지들이 매우 넓게 분포해 있어서 독점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 상인들이 유럽으로 들여온 후추의 양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포르투갈은 모두 12만 톤의 후추를 유럽에 들여왔다. 특히 1500~1509년 기간에 매년 7~8척의 배들이 3,000톤의 후추를 들여왔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 생산량의 1/3에 해당한다.

① 16세기 포르투갈의 전체 인구는 약 100만 명이었을 것이다.
❷ 16세기 초 포르투갈은 매년 10만 명이 해외에 나가 3,000톤의 후추를 유럽에 들여왔다.
③ 인도양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체계의 규칙적인 틀은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항해 이전에 형성되었다.
④ 16세기에 포르투갈은 후추 등 향신료의 아시아 무역에서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⑤ 포르투갈이 12만 톤의 후추를 유럽에 들여올 때 구리를 대금으로 지급했다면, 최소 3만 톤의 구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21. 다음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옳은 것은?

> 성균관을 다른 말로 '반궁(泮宮)'이라 한다. 반궁이란 말의 유래는 중국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周)나라 때 천자(天子)의 나라에 설립한 학교를 벽옹(辟雍)이라 하고, 제후의 나라에 설립한 학교를 반궁이라 하였다. 반궁이란 말은 '반수(泮水)'에서 온 말이다. 물론 여기서의 '궁(宮)'은 궁전이란 뜻이 아니고 단순히 건물이란 뜻이다. 이런 내력으로 인해 성균관과 관련된 곳에 흔히 '반(泮)'자를 붙였으니, 성균관 주위의 마을을 '반촌(泮村)'이라 하고 그 곳의 주민은 반민(泮民), 반인(泮人)이라 불렀던 것이다.
>
> 18세기의 저명한 문인이자 학자인 서명응이 쓴 『안광수전(安光洙傳)』에 반촌의 유래와 반촌 주민에 관한 소상한 언급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반촌은 고려 말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1243~1306)이 자기 집안의 노비 100여 명을 희사하여 성균감(성균관의 전신)을 부흥할 것을 도운 데서 비롯된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성균관을 한양으로 옮기자 그 노비 자손들이 옮겨와 살면서 하나의 동리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곳을 반촌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
> 반촌의 형성 유래가 이러했으므로, 반촌의 거주자 반인의 삶은 성균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대사성 이하 관료조직과 교관 그리고 유생들이 있었다. 더욱이 성균관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강의동인 명륜당 이외에도 학생들의 기숙사와 식당이 있었다. 이런 건물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였고, 반인들은 바로 이 성균관의 잡역을 세습적으로 맡아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
> 또한 반촌은 새로운 이념 서클의 온상 역할도 했다. 이승훈과 정약용 등은 당시 지방에서 새롭게 시작된 천주교 학습을 반촌에서 시도하다가, 척사(斥邪)파의 공격을 받고 지방으로 축출되기도 했다.

① 한양에 반촌이 형성된 것은 고려말기이다.

❷ 성균관이 쇠퇴한 시기에는 반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③ 조선시대에 천주교는 반촌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성균관은 학생인 반인 · 유생을 비롯하여 대사성 이하 관료와 교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⑤ 성균관을 반궁이라 부른 것은 조선을 천자의 나라로 본 당시의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피부색은 멜라닌, 카로틴 및 헤모글로빈이라는 세 가지 색소에 의해 나타난다. 흑색 또는 흑갈색의 색소인 멜라닌은 멜라노사이트라 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며, 계속적으로 표피세포에 멜라닌 과립을 공급한다. 멜라닌의 양이 많을수록 피부색이 황갈색에서 흑갈색을 띠고, 적을수록 피부색이 엷어진다. 멜라닌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수록 더 많이 생성된다. 카로틴은 주로 각질층과 하피의 지방조직에 존재하며, 특히 동양인의 피부에 풍부하여 그들의 피부가 황색을 띠게 한다. 서양인의 혈색이 분홍빛을 띠는 것은 적혈구 세포 내에 존재하는 산화된 헤모글로빈의 진홍색에 기인한다. 골수에서 생성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1개의 적혈구는 3억 개의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의 헤모글로빈에는 4개의 헴이 있다. 헴 1개가 산소 분자 1개를 운반한다.
>
> 한편 태양이 방출하는 여러 파장의 빛, 즉 적외선,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중 피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외선이다. 자외선은 파장이 가장 길고 피부 노화를 가져오는 자외선 A, 기미와 주근깨 등의 색소성 질환과 피부암을 일으키는 자외선 B, 그리고 화상과 피부암 유발 위험을 지니며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C로 구분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에 표시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시간을 나타낼 뿐 자외선 B의 차단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 SPF 수치는 1부터 시작하며, SPF 1은 자외선 차단 시간이 15분임을 의미한다. SPF 수치가 1단위 올라갈 때마다 자외선 차단 시간은 15분씩 증가한다. 따라서 SPF 4는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차단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ㄱ. 멜라닌의 종류에 따라 피부색이 결정된다.
ㄴ. 1개의 적혈구는 산소 분자 12억 개를 운반할 수 있다.
ㄷ. SPF 50은 SPF 30보다 1시간 동안 차단하는 자외선 B의 양이 많다.
ㄹ. SPF 40을 얼굴에 한 번 바르면 10시간 동안 자외선 B의 차단 효과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❸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유치(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A가 5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로 B소유의 보석을 받으면, B가 5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A는 그 보석을 보유한 채 되돌려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A처럼 질권을 취득한 채권자를 질권자라 하고, B처럼 채권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질권설정자라 한다. 동산질권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 질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때 소멸한다.
>
> 한편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 등이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담보목적으로 등기된 채권자의 권리를 동산담보권(動産擔保權)이라 한다. 동산담보권의 취득이나 소멸은 동산질권과 달리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그밖에 동산담보권자는 동산질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甲이 乙소유의 동산에 대해 동산질권을 취득한 후, 그 동산을 乙에게 반환하면 甲의 동산질권은 소멸한다.

② 경찰관 乙이 채권자 甲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더라도 甲은 동산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상호등기를 한 乙이 채권자 甲에게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甲이 그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甲은 동산담보권을 취득한다.

④ 乙법인이 제공한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甲이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동산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동산담보권이 丙의 동산담보권보다 우선한다.

⑤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법인의 동산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 동산담보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액에 비례하여 甲은 동산의 일부에 대해 동산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계통색명이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 색명은 관용색명과 계통색명으로 구분한다. 이 중 관용색명은 동식물, 광물 등으로부터 연상에 의해 떠올리는 색 표현 방법으로 병아리색, 황토색, 살구색, 장미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계통색명은 유채색의 계통색명과 무채색의 계통색명으로 나뉜다. 계통색명은 기본색명 앞에 명도·채도에 관한 수식어와 색상에 관한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기한다. 이때 사용되는 수식어는 필요에 따라 하나 혹은 둘을 기본색명 앞에 붙여 표기할 수 있고 그 순서는 바꿀 수 없다.
>
> ○ 유채색의 계통색명 표기법
>
> | 명도·채도에 관한 수식어 | 색상에 관한 수식어 | 기본색명 |
> |---|---|---|
>
> ○ 무채색의 계통색명 표기법
>
> | 명도에 관한 수식어 | 색상에 관한 수식어 | 기본색명 |
> |---|---|---|
>
> ○ 기본색명
>
> | 유채색 | 무채색 |
> |---|---|
> |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 흰색, 회색, 검정 |
>
> ○ 유채색의 명도·채도에 관한 수식어, 무채색의 명도에 관한 수식어
>
수식어	구분
선명한	유채색
흐린	유채색
탁한	유채색
밝은	유채색, 무채색
(아주) 어두운	유채색, 무채색
진한	유채색
(아주) 연한	유채색
>
> ○ 색상에 관한 수식어
>
수식어	적용하는 기본색명
빨강 띤	보라, 노랑, 흰색, 회색, 검정
노랑 띤	빨강, 녹색, 흰색, 회색, 검정
녹색 띤	노랑, 파랑, 흰색, 회색, 검정
파랑 띤	녹색, 보라, 흰색, 회색, 검정
보라 띤	파랑, 빨강, 흰색, 회색, 검정
>
> ※ 색상에 관한 수식어는 쓰임에 따라 예를 들어 '빨강 띤', '빨강 기미의', '빨강 끼의' 등으로 바꾸어 표현하거나 '빨강빛'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 진한 회색

② 보라빛 노랑

③ 선명한 파랑 띤 노랑

④ 빨강 기미의 밝은 보라

❺ 아주 연한 노랑 끼의 녹색

2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단, 모든 금융거래는 1거래일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금융기관은 현금(외국통화는 제외)이나 어음·수표와 같이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으로 1거래일 동안 같은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총액이 2,000만 원 이상 또는 영수(領收)한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고액현금거래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사이 또는 금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에서의 현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 기>

- A는 甲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 100,000달러를 입금하고, 3,00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 B는 乙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서 세종시 세무서에서 부과된 소득세 3,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였다.
- C는 丙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丙은행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 D는 丁은행의 자기 명의 a, b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 E는 戊은행의 자기 명의 계좌에 현금 1,900만 원을 입금하고, 戊은행의 F 명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① A, B

❷ A, D

③ A, B, D

④ B, C, E

⑤ C, D, E

2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1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보 기>

ㄱ.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물면 국보가 될 수 있다.

ㄴ. 중요무형문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ㄷ.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때에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명예보유자가 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다.

ㄹ. 문화재청장은 해당 중요무형문화재를 최고의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종목당 한 사람 또는 한 단체만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❺ ㄱ, ㄴ, ㄷ, ㄹ

27. 다음은 ○○기관의 제휴시설 안내 홈페이지의 일부인 <호텔 상호 리스트>와 <지역별 리스트>이다. 이를 근거로 추론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호텔 상호 리스트>

호텔 | 콘도미니엄 | 지역별

- 남총마리나피싱리조트 (1)
- 남해스포츠파크 호텔 (1)
- 노보텔 엠버서더 (4)
- 대문산관광호텔 (1)
- 호텔인터시티 (1)
- 신안비치호텔 (1)
- 치클라우드 호텔 (1)
- 유성호텔 (1)
- 켄싱턴호텔 (2)
- 코모도호텔 (1)
- 춘천세종호텔 (1)
- 단양관광호텔 (1)
- 호텔농심 (1)
- 해운대그랜드호텔 (1)
- 서울교육문화회관 (1)
- 경주교육문화회관 (1)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1)
- 라마다호텔&스위트 (2)
- 해운대 센텀호텔 (1)
- 라마다송도호텔 (1)
-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1)
- 송도파크호텔 (1)
- 더클래스300 호텔 (1)
- 해남땅끝호텔 (1)
- 한옥호텔 영산재 (1)
- 여수엠블호텔 (1)

숙소명	소재지	상세보기
남총마리나피싱리조트	경남 남해군 삼동면	[상세보기]

<지역별 리스트>

호텔 | 콘도미니엄 | 지역별

서울 (5)	부산 (7)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2)
경기 (5)	강원 (15)	충북 (4)
충남 (3)	전북 (3)	전남 (9)
경북 (3)	경남 (4)	제주 (5)

숙소명	소재지	상세보기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상세보기]
노보텔 엠버서더 독산지점	서울시 금천구	[상세보기]
라마다호텔&스위트 남대문지점	서울시 중구	[상세보기]
라마다호텔&스위트 동대문지점	서울시 중구	[상세보기]
서울교육문화회관	서울시 서초구	[상세보기]

※ ○○기관은 호텔과 콘도미니엄만을 제휴시설로 한다.
※ 호텔과 콘도미니엄 리스트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제휴시설은 없다.
※ <호텔 상호 리스트>에서 지역명을 포함한 호텔은 그 해당 지역에 위치한다.

<보 기>
ㄱ. 기관과 제휴된 호텔 수와 콘도미니엄 수는 동일하다.
ㄴ. 하나의 시·도에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은 없다.
ㄷ. 기관과 제휴된 호텔은 모두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ㄹ. 기관과 제휴된 콘도미니엄이 없는 시·도가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❸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존'과 '페르미온'이라는 2개의 방이 있다.
- 각 방에는 1부터 20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 '페르미온'이라는 방에 들어가면 주머니에서 한번에 3개의 공을 뽑고, 이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숫자 각각의 제곱의 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보존'이라는 방에 들어가면 주머니에서 공을 1개 뽑고, 다시 그 공을 넣어서 흔든 후 두 번째 공을 1개 뽑고, 다시 그 공을 넣어서 흔든 후 마지막 공을 1개 뽑은 다음 세 숫자의 각각의 제곱의 합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A군은 둘 중 하나의 방에만 들어간다.

<보 기>
ㄱ. 만약 A군이 어느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알려준 숫자가 14보다 작은 수라면, A군은 틀림없이 '보존'방에 들어갔었다.
ㄴ. A군이 '보존'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에게 108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었다. 이 경우 A군이 뽑은 숫자들은 2, 2, 10 또는 6, 6, 6의 조합이다.
ㄷ. 만약 우리에게 알려준 숫자가 108이면, A군이 '페르미온'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왔을 확률은 50%이다.
ㄹ. A군이 '보존'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에게 108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었다. 108이 나온 경우 중, A군이 첫 번째에 2를 뽑고 두 번째에 2를 뽑고 세 번째에 10을 뽑았을 확률은 25%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❹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의 ㉠, ㉡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 ㉡)

신라는 일반적 시간 계산 체계로 백각법(百刻法)과 12시신(時辰) 제도를 배합하여 사용했다. 백각법은 하루의 길이를 100각으로 나누는 시간 계산법이었다. 구체적으로, 매일 낮밤의 길이와 일출·일몰의 시각을 계산하기 위해, 밤의 길이인 야각(夜刻)을 구하고 100각에서 이를 감해 낮의 길이인 주각(晝刻)을 구하였다. 또한 12시신 제도는 하루를 12시신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제도였다. 그런데 100각은 12시신의 정수배가 되지 않으므로 1각을 60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역법(曆法) 계산 시에는 각 역에서 사용되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선명력(宣明曆)에서는 1일을 100각, 1각을 84분으로 정했다.

한편 신라에서는 야각의 계산에 있어서 밤 시간을 5경으로 나누고, 1경을 다시 5점으로 나누는 경점(更點) 제도도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신라에서는 백각법과 12시신 제도를 배합하여 일반적 시간 계산 체계와 역법의 계산 체계, 그리고 야각의 시간 계산 체계가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보 기>
- 신라의 일반적 시간 계산에 따르면, 1시신은 (㉠)이다.
- 하루 중 4시신이 밤 시간이었다면, 선명력에 따르면 1경은 (㉡)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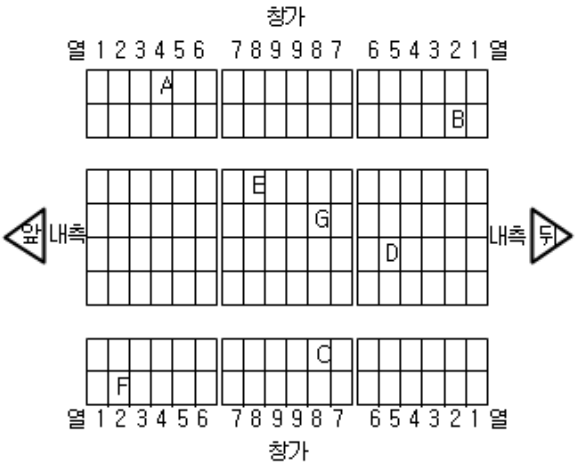
❶ 8각 20분, 6각 56분
② 8각 20분, 6각 40분
③ 7각 28분, 6각 56분
④ 7각 28분, 9각 20분
⑤ 6각 30분, 9각 20분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G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 기내식 종류별 제공 순서
1. 어린이식사를 가장 먼저 제공한다.
※ 어린이식사는 미리 주문한 사람에 한하여 제공하며, 어린이와 동승한 자의 식사도 함께 제공한다.
2. 특별식을 두 번째로 제공한다.
※ 특별식에는 채식, 저칼로리식, 저탄수화물식, 저염식이 있으며, 미리 주문한 사람에 한하여 제공한다.
3. 일반식을 마지막으로 제공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체의 가장 앞쪽과 가장 뒤쪽부터 중간쪽 방향으로 제공한다. 단, 같은 열에서는 창가에서 내측 방향으로 제공한다.

- 탑승자 정보
A: 어린이와 동승했으며 어린이식사를 미리 주문하였다.
B: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았으며, 동승한 친구는 자신이 먹을 채식을 미리 주문하였다.
C: 혼자 탑승하였으며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D: 어린이와 동승하였으나 어린이식사를 주문하지 않았다.
E: 혼자 탑승하였으며 저칼로리식을 미리 주문하였다.
F: 성인인 친구와 동승하였으며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G: 혼자 탑승하였으며 특별식을 주문하지 않았다.

- 탑승자의 좌석 배치도



① A−B−E−F−D−C−G
② A−E−B−F−D−G−C
❸ A−E−F−B−D−C−G
④ B−F−A−D−G−C−E
⑤ B−F−A−D−E−G−C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도자기 장인 A의 제자들이 몇 명까지 배출되면 도자기 제작자들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개수의 합이 최대가 되는가?

- 장인 A는 제자 1을 길러내고, 제자 1은 제자 2를, 제자 2는 제자 3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제자 수를 늘려나간다. 즉, 각 도자기 제작자는 단 1명에게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으며, 기술 전수에는 1년이 소요된다.
- 각 제자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도자기 개수는 자신을 직접 길러낸 스승의 최초 1일 도자기 생산량보다 20개 적다.
- 각 도자기 제작자는 모든 직계 제자를 관리해야 하므로, 도자기 제작자가 만드는 1일 도자기 개수도 제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10개씩 감소한다. 예컨대 제자 1만 있으면 장인 A의 도자기 생산량은 10개 감소하지만, 제자 2까지 있으면 장인 A는 20개, 제자 1은 10개 감소한다.
- 장인 A의 최초 1일 도자기 생산량은 100개이다.

① 1명

② 2명

❸ 3명

④ 4명

⑤ 5명

32. 다음 <조건>에 따를 때,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1. 양동, 남헌, 보란, 예슬 네 사람은 시급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성된 태스크포스팀의 팀원이다. 이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 파견된 상태이다.
2. 네 사람은 오직 스마트폰의 MOFA톡 애플리케이션만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한다.
3. MOFA톡은 오로지 1대1 메시지 전송만이 가능하다.
4. 상호 '친구'로 등록한 경우 두 사람은 서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5. 만약 한 사람(A)이 상대방(B)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경우, 그 사람(A)은 상대방(B)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B)에게는 여전히 그 사람(A)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상대방(B)은 자신의 메시지를 그 사람(A)에게 전송할 수 있다.
6. 네 사람의 MOFA톡 '친구'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양동은 남헌, 보란, 예슬 모두를 MOFA톡 '친구'로 등록하였다.
   (2) 남헌은 양동, 보란, 예슬 모두를 MOFA톡 '친구'로 등록하였다.
   (3) 보란은 양동, 예슬을 MOFA톡 '친구'로 등록했지만 남헌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4) 예슬은 남헌을 MOFA톡 '친구'로 등록했지만 양동, 보란을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보 기>

ㄱ.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예슬은 곧바로 남헌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 메시지를 받은 남헌이 보란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보란은 최종적으로 양동에게 이 메시지를 전송했다.

ㄴ. 남헌은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양동에게 전송했다. 양동은 이를 위임하는 메시지를 예슬에게 전송했고, 3일 뒤 예슬은 양동에게 조사결과 메시지를 전송했다.

ㄷ. 보란은 현재 진척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예슬에게 전송했고, 5분 뒤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예슬로부터 전송받았다.

ㄹ. 예슬은 업무관련 문의 메시지를 남헌에게 전송했고, 남헌은 잘 모르겠다며 보란에게 문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보란은 답변을 정리하여 예슬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

ㅁ. 예슬은 남헌이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비난하는 메시지를 남헌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화가 난 남헌은 하소연하는 메시지를 보란에게 전송했다.

① ㄱ, ㄴ

❷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33. 다음 낚시대회의 <경기규칙>과 <경기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단체전 대어상 수상 부처 (가)와 개인전 대어상 수상자가 속한 부처 (나)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가), (나))

<경기규칙>
- 단체전은 각 부처별 참가자 중 1, 2, 3번의 번호표를 받은 사람이 잡은 물고기만을 계측하며, 참가자가 3명 미만인 부처는 단체전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인전은 모든 참가자가 잡은 물고기를 계측한다.
- 다음 계측 방법에 따른 물고기의 길이가 가장 긴 부처와 개인에게 각각 대어상을 수여한다.
  - 단체전의 경우, 어종별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가장 긴 2개 값만 합산한다.
    ※ 기준치:붕어 10cm, 잉어 20cm, 메기 23cm
  - 개인전의 경우, 기준치에 관계없이 물고기 길이만을 비교한다.
    ※ 계측치가 같을 때에는 붕어, 잉어, 메기의 순으로 대어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경기결과>

참가자 / 부처명	1번	2번	3번	4번
A	붕어 15 cm	잉어 18 cm	메기 26 cm	붕어 20 cm
B	붕어 15 cm	잉어 20 cm	메기 30 cm	메기 25 cm
C	메기 25 cm	잉어 23 cm	잉어 32 cm	참가자 없음
D	메기 30 cm	붕어 8 cm	붕어 20 cm	메기 15 cm
E	붕어 32 cm	붕어 12 cm	참가자 없음	참가자 없음

① A, C

② C, B

③ C, E

❹ D, E

⑤ D, C

34. 다음 <표>와 <선호기준>에 따를 때, 민주, 호성, 유진이 선택할 제품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순서대로 민주, 호성, 유진)

< 표 >

항목 / 제품	가격 (원/개)	용량 (mL/개)	발림성	보습력	향
반짝이	63,000	75	★★★	★★★★	★★★
섬섬옥수	40,000	85	★★	★★★	★★
수분톡톡	8,900	80	★★★	★★★★	★★★
보드란	6,900	30	★★	★★★	★
솜구름	30,000	120	★★★	★★	★★★

※ 제품의 크기는 용량에 비례하고, ★이 많을수록 해당 항목이 우수하다.

<선호기준>
- 민주: 난 손이 워낙 건조해서 무엇보다 보습력이 뛰어난 제품이 필요해. 그 다음으로는 산뜻하게 잘 발리는 제품이 좋아!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 호성: 난 발림성, 보습력, 향 모두 우수할수록 좋아. 그 다음으로는 제품가격이 낮으면 좋겠지!
- 유진: 무조건 향이 좋아야지! 손을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향이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알아? 향이 좋은 것 중에서는 부드럽게 잘 발리는 게 좋아! 그 다음으로는 가방에 넣어 다니려면 제품 크기가 작은 게 좋겠어.

① 수분톡톡, 보드란, 수분톡톡

② 수분톡톡, 솜구름, 반짝이

❸ 수분톡톡, 수분톡톡, 반짝이

④ 반짝이, 수분톡톡, 보드란

⑤ 반짝이, 보드란, 수분톡톡

35. 다음 <조건>에 따를 때, E의 진료시작 시각은?

<조 건>
- 진료와 검진은 10시 정각부터 시작한다.
- 진료는 접수시각 순으로 하되, 진료예약환자와 미예약환자가 동시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진료예약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한다.
- 매 5분마다 새로운 환자를 진료하며, A~J까지의 진료는 10시 50분에 종료된다.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는 없다.
- 검진환자는 접수 후 검진을 시작하고, 검진을 받는 데에는 총 10분이 소요된다.
- 검진환자는 검진이 끝난 순간 진료가 진행중인 환자가 없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순번으로 진료를 받는다.
- 진료실은 1개만 있으며, 진료실에서는 한 명의 환자만이 진료를 받는다. 반면, 검진실은 충분히 존재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이동하는 시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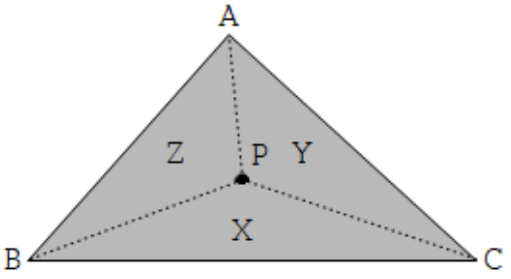
<대기환자 리스트>

환자명	접수시각	진료예약여부	비고
A	9 : 28	×	-
B	9 : 30	×	검진
C	9 : 34	○	-
D	9 : 46	×	-
E	10 : 00	×	-
F	10 : 03	○	검진
G	10 : 04	×	-
H	10 : 07	○	검진
I	10 : 14	○	검진
J	10 : 31	○	-

① 10:25
② 10:30
③ 10:35
❹ 10:40
⑤ 10:45

36.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조 건>
삼각형의 내부(각 꼭지점과 각 변 포함)의 한 점을 표시할 때, 세 개의 좌표축을 사용하는 무게중심 좌표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위 삼각형에서 내부의 한 점 P를 잡았을 때, △PBC, △PCA, △PAB의 면적이 차례대로 X, Y, Z인 경우, 좌표값을 $x = X/(X+Y+Z)$, $y = Y/(X+Y+Z)$, $z = Z/(X+Y+Z)$로 정의하여 P(x, y, z)와 같이 내부의 점을 표시한다.
2. 삼각형의 각 꼭지점은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A(1, 0, 0), B(0, 1, 0) 그리고 C(0, 0, 1)로 표시된다.

※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세 삼각형의 면적은 모두 같다.

<보 기>
ㄱ. △ABC의 세 변 AB, BC, CA 위에 존재하는 점 중에서 꼭지점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점을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좌표값 중 한 개는 반드시 0이다.
ㄴ. 각 꼭지점과 각 변에 존재하는 점을 제외한 삼각형 내부의 점을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각 좌표값 x, y, z는 0과 1 사이의 정수로 표시된다.
ㄷ.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 하고, 이를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내면 G(1/3, 1/3, 1/3)로 표시된다.
ㄹ. △ABC의 내부에 변 BC와 평행한 임의의 선분을 표시한다. 그 선분 위에 존재하는 점 P1, P2를 무게중심 좌표계로 나타내면, 각각 $P_1(x_1, y_1, z_1)$, $P_2(x_2, y_2, z_2)$로 표시되고, 좌표값 x_1과 x_2는 항상 동일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ㄷ, ㄹ
❹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7. 다음 <조건>과 <연주곡과 악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연주자 6명(A~F)이 연주 가능한 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조 건>
- A는 바이올린, B는 바이올린, C는 피아노·첼로, D는 바이올린·비올라, E는 피아노·비올라, F는 피아노·바이올린·첼로를 연주할 수 있다.
- 각 연주자는 연속하여 연주할 수 없으며, 한 곡에서 2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

<연주곡과 악기>

곡명	악기
모차르트 K.488	피아노 + 피아노
베토벤의 '봄' Op.24	피아노 + 바이올린
베토벤의 '유령' Op.70-1	피아노 + 바이올린 + 첼로
멘델스존 Op.49	피아노 + 바이올린 + 첼로
브람스 Op.25	피아노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슈만 Op.47	피아노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슈베르트의 '숭어' Op.114	피아노 + 바이올린 + 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① 모차르트 K.488→슈베르트의 '숭어' Op.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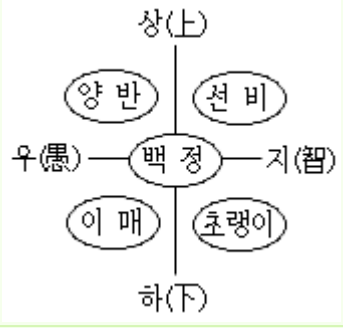
② 베토벤의 '봄' Op.24→슈베르트의 '숭어' Op.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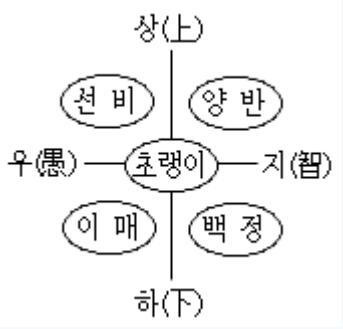
③ 베토벤의 '유령' Op.70-1→멘델스존 O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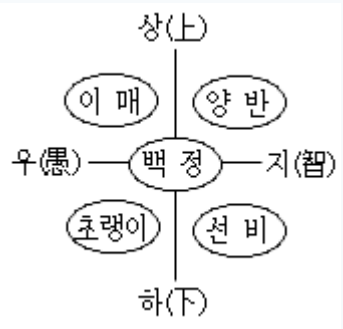
④ 베토벤의 '유령' Op.70-1→모차르트 K.488→슈만 O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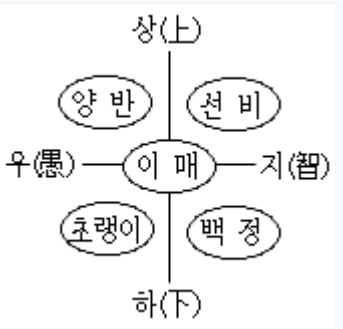
❺ 멘델스존 Op.49→베토벤의 '봄' Op.24→브람스 Op.25

38. 위의 글을 근거로 추론할 때, 하회탈놀이에서 나타나는 인물관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39번 공통지문 문제)

❶


②


③


④


⑤
